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8. 26

주간 달러/원 동향(8/19~8/23)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주택지표 부진에 연준의 피벗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외 롱스탑 물량 출회에 환율은 20원 넘게 급락하며 출발. 이어 매파 성향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9월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유입에 하락폭 제한되며 소폭 하락
- 중반, 양방향 수급 유입 속 등락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금통위를 앞둔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
- 후반, 7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과 한은 금통위의 소수 의견 부재 등 일부 매파적 스탠스에 재차 하락. 이어 주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

달러/원 전망

-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보낸 강력한 금리인하 시그널 영향이 크게 탄력 받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하락 속 위험 선호 영향 등으로 원화 강세 예상. 여기에 주중 주요 뉴욕증시 기술주 실적 발표 등에 대한 시장 기대도 위험 선호에 영향 미치며 달러 약세 지지할 전망
- 하지만, 중동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슈 등에 대한 시장 불안감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결제 수요 유입 등이 하단 지지할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0.9	1,351.0	1,325.2	1,338.8	-12.1

예상거래범위

1,315원 ~ 1,335원

엔·유로화 동향 (8/19~8/23)



유로화 동향

- 주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비둘기 발언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유로화는 강세 보이며 출발. 이어 비농업 고용 수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세 지속
- 중반, 도비시한 7월 FOMC 의사록과 예상보다 부진한 미 고용 데이터로 인한 약달러에 추가 강세를 보임
- 후반, 독일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데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에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되자 큰 폭 반등 후 1.12달러선에 근접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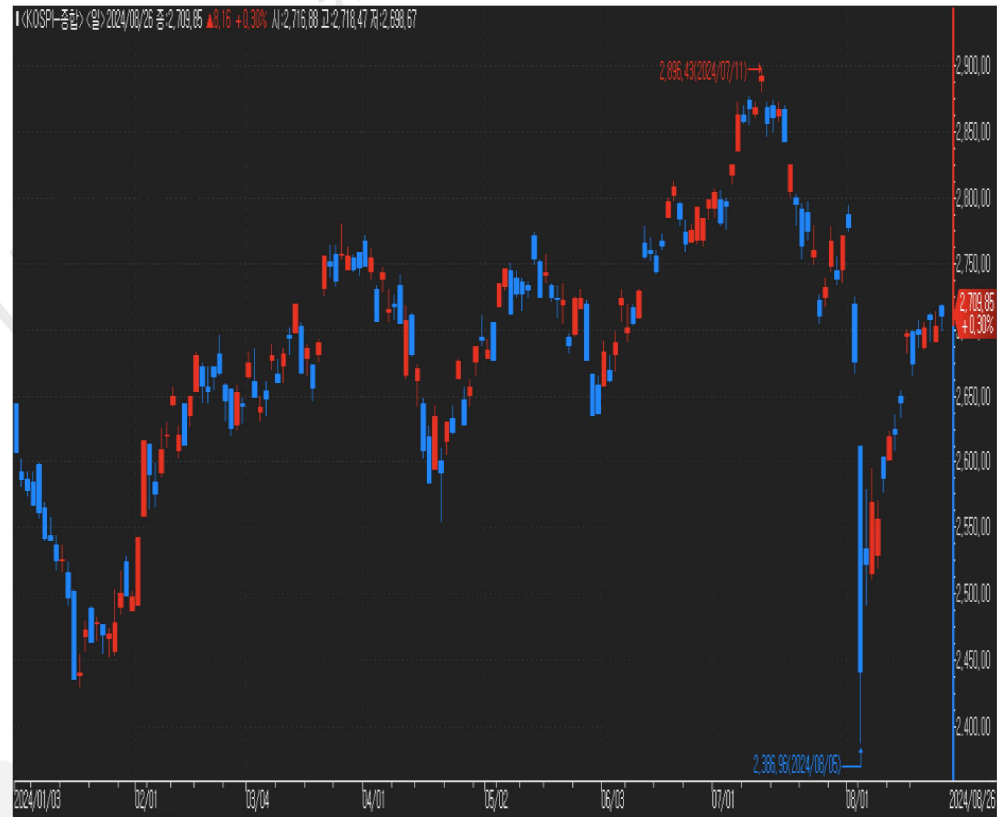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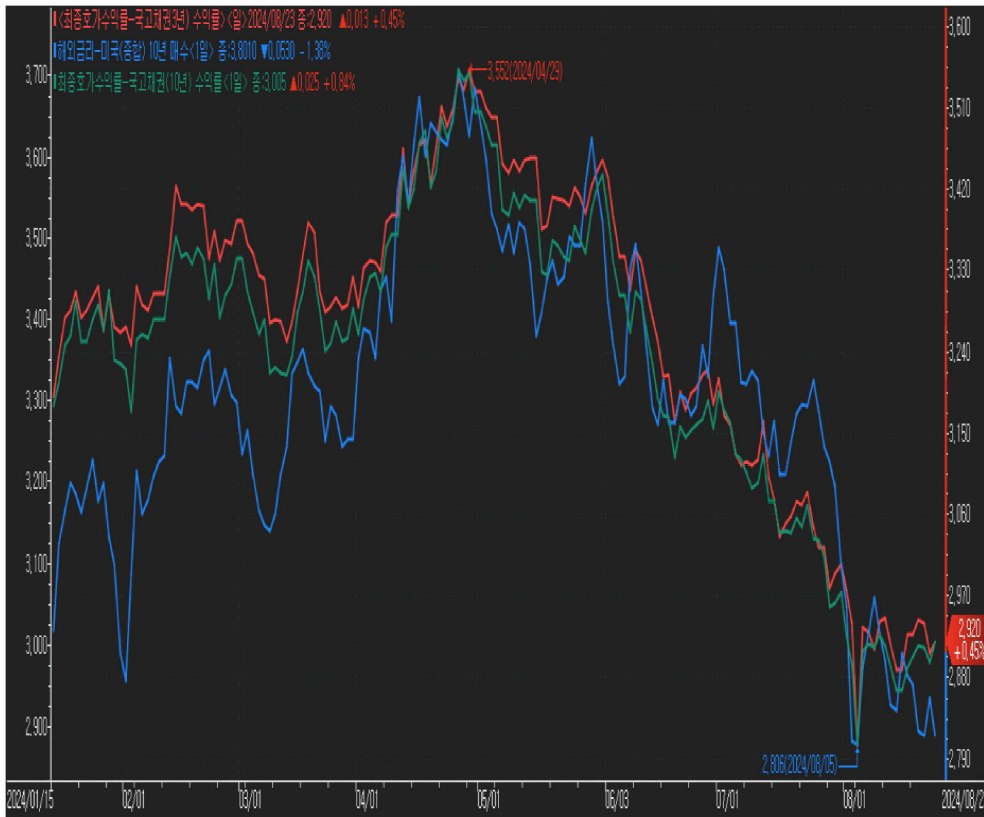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인사의 9월 금리인하 논의 관련 발언이 달러 약세를 견인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미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미-일 금리차 축소에 추가 강세를 시현
- 중반, 7월 FOMC 의사록의 비둘기 스탠스로 인한 약달러에도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의회 출석을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소폭 강세에 그침
- 후반, 예상치를 하회한 일 제조업 PMI 데이터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추가 긴축 의지를 보인 우에다 BOJ 총재의 의회 연설과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잭슨홀 연설에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며 144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27	1.1201	1.1023	1.1192	+0.0165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6	148.1	144.1	144.4	-3.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19~8/23)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따른 금리인하 기대와 연준 당국자의 비둘기적 언급 등으로 소폭 하락 출발. 이어 연준 인사들의 9월 금리인하 논의 적절성 언급 등 비둘기적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도 대내외적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 속에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전일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해 출발했지만, 금통위가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낙폭을 줄이며 소폭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 결과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대량 매수 등에 따른 긍정적 수급 영향 속 하락 지속 후, 주 후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요 연준 당국자들 간 금리 인하 견해가 다소 엇갈린 가운데 경계감 강화하는 국면을 보인 가운데 전일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 반영하며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외국인 수급 부재 속 국내 반도체 및 이차 전지 등의 약세, 글로벌 증시의 하방 위험에 영향을 미친 엔화 강세 흐름 등으로 코스피는 하락 출발. 이어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 흐름 전환 시현
- 중반 들어, 미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과 뉴욕 3대 지수의 차익실현 압박 속에서도 소폭 상승 이어진 모습
- 후반 들어,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는 가운데 7월 FOMC 의사록의 비둘기적 스탠스에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낸 후, 주 후반, 전일 뉴욕증시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 외국인 순매도 영향 속 소폭 약보합 시현하며 마감